

투데이 칼럼

모순 어법

각 종 영문으로 된 책을 읽다 보면 가끔씩 재미있는 표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모순어법 (oxymorons)이다. 우리 말 보다는 영어에서 그런 표현을 자주 접하는 것은? 영문화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고대 그리스어 *oksus* (sharp, keen, pointed)와 *mros* (dull, stupid, foolish)라는 모순된 두 단어가 결합된 그 단어 자체가 모순어라서 모순어법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학 교양학부 시절에 영어교재로 5·6백 페이지는 되는 두꺼운 책을 사용했는데 중·단편 소설들과 수필문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 때 알게 된 것이 *coup de grace*라는 프랑스어였는데 영어에서도 *mercy killing*이라는 번역 대신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자비의 일격'이라고 직역해야 될 듯한데 죽이는 행위가 '어찌 자비로운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전투중의 상처 등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동료나 적에게 치료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자비로운 행동으로 받아들이진다. 물론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살인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일부 유럽국가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 허용하는 안락사(euthanasia)는 법적으로 허용된 자비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본식 히라키리(할복자살)



최병효

전 LA총영사·노르웨이 대사

는 강요된 자살행위로서 "자비의 일격"은 아니나 사실상의 명예살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아마나 애견에게 베푸는 자비의 일격도 있을 것이다. 또 흔히 쓰이는 모순어법으로 *open secret*이 있다. 알려진 비밀이면 비밀이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닐 때에 쓸 수 있는 표현일 것이다. *deafening silence*는 귀를 막을 정도로 시끄러운 정적이거나 이상하다. 정적에 무슨 큰 소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시끄럽던 주위가 갑자기 정적에 휩싸인 모습을 이보다 더 나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일본 하이쿠의 대가 마츠오 바쇼는 '조용함이어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 울음소리'라고 읊었다는데 그 시끄러운 매미 울음소리에도 불구하고 깊은 산중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감흥을 잘

표현한 것 같다. "controlled chaos"(통제된 혼란), "organized mess"(조직된 엉망진창), "alone in a crowd"(대중 속의 혼자), "conventionally unconventional"(관습적으로 비관습적) 등의 표현 외에 일견으로는 모순되게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same difference"(같은 차이), "jumbo shrimp"(특대 새우), "hot ice"(뜨거운 얼음: 범죄 은어로 도둑질했다는 의미의 hot와 다이어몬드라는 의미의 ice) 등도 모순어법에 포함되는 것 같다. 한자어의 강약, 음양, 남녀, 선악 등은 어떤 모순적 표현을 위한 것은 아니고 그저 한 단어로 사용되어 서로 다른 두 단어로 구성되는 서양식 모순어와는 다른 듯 하다. 문화에서의 모순어법은 역시 색스피어에서 꽃을 피운 것 같다. 그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heavy lightness! Serious vanity! Mis-shapen chaos of well-seeming forms! Feather of lead, bright smoke, cold fire, sick health"
(오, 육중한 가벼움! 진지한 허영! ?말쭙한 형상들의 기형적 혼란! ?납의 깃털, 밝은 연기, 차가운 불, 병든 건강)
우리가 언어를 만드나 그 언어가 다시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기도 하며 언어의 발달과 사용은 다른 문화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모순어법은 언어를 떠나서 시각예술이나 물질의 세계에서도 표현되고 발견된다고 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정원의 하나인 교토의 료안지 방장 정원(절의 가장 높은 스님인 방장이 계시는 방장전물 앞 정원)에서 그 예를 발견할 수 있다.
큰 모래처럼 가늘게 부순 흰 자갈로 된 그 석정은 매일 스님들이 갈퀴로 여러가지 모양을 그린다. 그 모래 자갈 정원은 총 7개의 크고 작은 돌·바위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륙과 석가산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모래는 바다로 상징되는 대 갈퀴로 긁고 지나가면 여러 형태의 파도를 연상시킨다. 이에 따라 모래와 파도라는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들에 결합되어 '모래 파도'라는 모순어법적 물질로 형상화 되는 것이다.

사설

SOC 대동맥 구축에 매진해야

전북도가 SOC 대동맥 구축에 나섰다. 전국 어디든 2 시간 내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새만금 공항과 신항만을 제 때에 건설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래서 도민들은 그에 대해 기대가 크다. 그것은 그만큼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먼저 짚어볼 것이 있다. 전북도가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는 것이다. 그것은 야심이며 비전이 청사진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전북도가 SOC 확충에 관심을 갖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현실에서는 매번 벽에 부딪히고 있다. 무슨 말이라면 모든 것은 돈이 말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지난해 있었던 일을 다시 상기하거나 기획재정부의 SOC 예산 분배에 대해 불만이 크다. 기획재정부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지역 차별 의도가 역력하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차별적인 예산 분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안 된다. 예산 증액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슨 현안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여야 한다. 사실을 통해 지금 언급하고 있는 SOC사업을 생각하면 화가 날 지경이다. SOC 예산이 조금씩 증액됐지만 그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지난해 75%나 증액됐는데 호남 지역은 겨우 10% 정도만 증액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전북 지역은 6% 인상에 그치고 있다. 전북도는 SOC 예산과 관련해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획재정부의 태도와 관련해 전북도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 전북도는 이제 성과 있는 실적을 보여야 한다.
SOC와 관련해서 기대하는 것은 큰 데 매번 그에 못 미치고 있으니 유감이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뒤처진 이유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므로 SOC 예산 증액을 위해서 뭔가를 뚜렷하게 보여줘야 한다. 전북도가 비전을 제시할 때마다 도민들은 기대하는 게 크다. 거듭 강조하거나 SOC 확충을 위해서 더욱더 힘내야겠다.

전북의 탄소산업 아직 갈 길 멀다

전북 탄소산업의 역사가 10년인 데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여기며 키워왔지만 지역 경제를 위한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중론이다. 전북도는 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10년 세월의 공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를 위해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탄소 소재 및 부품 분야 육성에 힘을 실어준 것은 잘한 일이지만 기업군 형성이 안되면 상용화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데 전북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탄소 산업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작금이다. 전북이 경북의 들러리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다. 경북 쪽보다 그 역사가 오래이지만 받는 대우는 영 평판이다. 탄소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지난해 전북은 13종의 사업을 위해서 154억 8천 만원을, 경북은 11종의 사업을 위해서 144억2천만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었다. 그런데 영동하게도 과학기술평가원의 예타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이 뒤집어져 버렸다. 전북의 경우 80%를 삭감 당

해 22억원이 배정됐고, 경북의 경우는 20%만 삭감해 115억7천만 원을 배정했다. 전북 쪽은 희망한 11종의 사업 중에서 10종의 사업을 싹 무시한 반면, 경북은 9종이나 인정해주고 2종만 뺀 것이다.
전북의 탄소산업이 경북의 들러리가 되고 있다는 불만은 전혀 틀린 게 아니다. 정말이지 그같은 예타 불평등은 어이가 없다. 그때 TK 출신 '포피아'들의 농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후 틀린 지적은 아닐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쪽 출신 인사들이 항변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생각해도 당연한 반응이다.
전북도는 탄소산업의 성과를 말할 때 정직해야 한다. 진짜 현실을 말해야지 희망 사항을 기정 사실인양 말해선 안 된다. 현실과 희망은 구별돼 마땅하다. 탄소산업이 도민의 오랜 관심의 대상인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다니 전혀 뜻밖이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의 탄소산업이 경북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면서 탄소기업의 집적화에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이다.

독자제언

주차차량 물피사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가 버리거나, 반대로 누군가 내 차량을 들이받은 후 연락처를 남기지도 않고 도망을 가 피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도심권 등 주차공간이 협소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는 경찰서에 접수되는 교통사고 중 약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몇몇 경찰서에서는 이에 따로 수사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피해자는 본인 차량에 발생한 피해를 발견하면 사고 장소에서 112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 곧바로 112 신고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조치를 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피해회복과

해차량 특정에 큰 도움이 된다. 첫째, 주차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자.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지기에 가해차량 특정에 어려움이 많아질 수 있다. 최소한 날짜와 오전, 오후라는 정도의 시간은 기억하자. 둘째, 주변 CCTV 설치 여부 확인이다. 만약 피해 장소 주변에 범범용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기둥에 적혀있는 관리번호를 메모해 놓으면 되고, 사설 CCTV라면 설치되어 있는 곳의 주소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해 두자. 셋째, 블랙박스 영상 확보다. 피해 발견 시 곧바로 블랙박스의 전원을 끄고, 메모리칩을 제거 또는 녹화영상을 다른 저장장치에 백업하여 녹화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한다. **박재원 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순경**

독자제언

3.1절 역사의 의미를 마음으로부터 기리자

'3월 1일'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 단순히 공휴일이라는 것에 서부터, 유관순 열사, 그리고 탑골공원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만세소리가 떠오를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진들의 잔상이 남은 까닭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며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민방에 알렸다. 우리는 이날을 3.1절로 명하고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로 98주년을 맞이했다.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된 3.1운동은 이후 독립운동세력을 결집하고 국민 개개인이 한국 민족으로서 자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의립시정부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당시 제국주의 침략을 받던 약소민족에게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런 거창한 의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날의 만세운동이 지식인, 종교인, 학생, 노동자, 농민, 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각각의 사람들이 독립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임은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3.1절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매년 3.1절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만 기억하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의미를 마음으로부터 이해하고 그 뜻을 기리며, 나라사랑정신을 고취시키자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다. **남지영 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